

연금시장리뷰 14호

미일과 비교해 고령화 준비가 미흡한 국내 개인금융자산
- 개인금융자산 2,000조원 시대의 도래와 과제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연구본부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02-2072-6216, dbpark@hri.co.kr)

□ 미일과 비교해 고령화 준비가 미흡한 국내 개인금융자산¹

- 개인금융자산 2,000조원 시대의 도래와 과제

■ 2,000 조원 돌파한 국내 개인금융자산

국내 개인금융자산은 2009 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00 조원을 상회한 지 7 년 만에 2,000 조원을 돌파하였다. 1 인당 개인금융자산도 4,000 만원을 넘었다. 개인금융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가 급반등으로 '주식 및 수익증권'이 144.5 조원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통화와 예금'도 98.8 조원이나 증가하였다.

■ 고령화 준비가 미흡한 국내 개인금융자산 (미·일과 비교)

국내 개인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미·일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금융자산 규모와 구조로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금융자산이 크게 부족하다. 총자산의 20%에 불과해 실물자산 가격 변동에 의한 위험흡수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물과 금융 자산 간의 유동성 불일치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둘째, 노후대비 자산 축적이 쉽지 않다. 개인금융자산 가운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비중이 높아 수익창출이 어렵다. 특히 '통화와 예금' 가운데 현금과 결제성단기저축의 비중이 27%에 이르고,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해 있는 수준이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로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높은 자산 비중이 크다. 주가 등 시장변수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의 직접투자 비중이 76%나 되어 주가변동에 따르는 리스크가 높은 현실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간접투자도 해외펀드 비중이 커지면서 해외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위험까지 안고 있다. 넷째, 인구수명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 부재로 노후생활 대비가 취약하다. 국내 개인금융자산 가운데 장기채 비중은 3.8%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22%, 일본의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대응 과제

정책당국은 무엇보다도 개인자산 중에서 가장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 가치를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저금리·과잉유동성에 의해 형성된 부동산버블이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으로 갑작스럽게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실물자산이 금융자산 부족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역모기지제도와 같은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등 국내 채권시장구조를 개선하여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 한편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심화되고, 가계의 리스크노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개인들의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개인들이 건강하게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인도 과다 리스크노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해야 한다.

¹ 이 글은 현대경제연구원의 4월 2일자 경제주평에 발표된 글을 재인용한 글임

1. 2,000 조원 돌파한 국내 개인금융자산

○ 2000 년 국내 금융자산은 금융구조의 고도화로 경제규모 확대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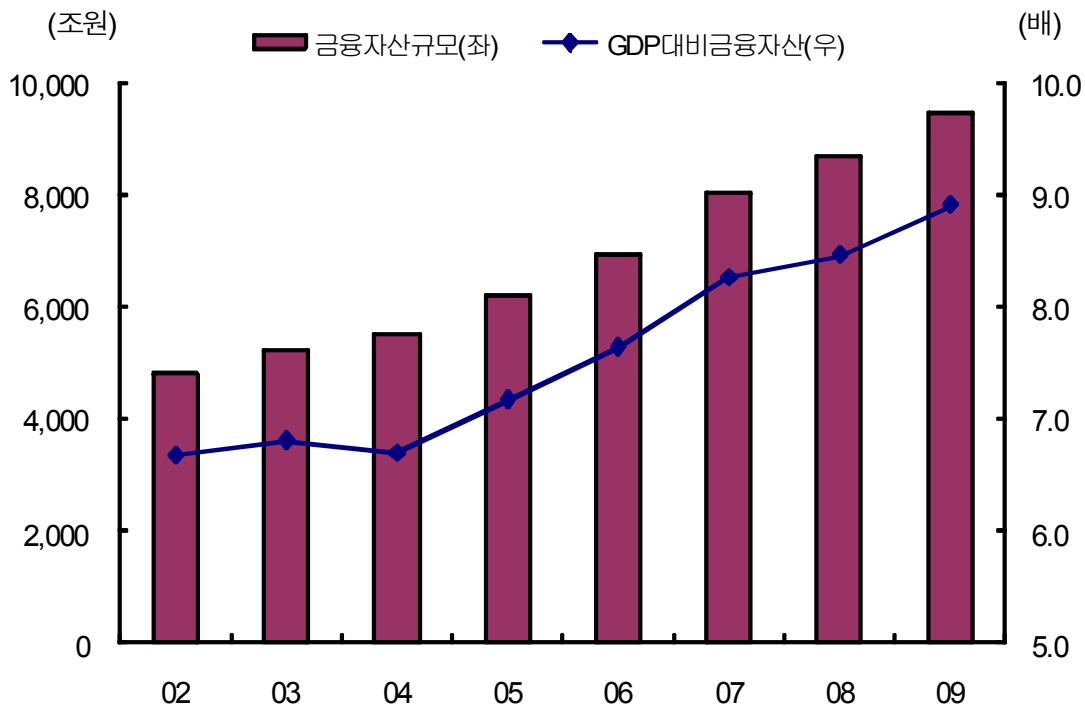
- 2000 년 이후 국내 금융자산은 경제규모 확대, 소득 증대, 자산 가치 상승, 금융기관 대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

. 2002 년 말 현재 국내 금융자산 잔액은 4,814.7 조원에서 2009 년 말 현재 9,477.1 조원으로 거의 2 배 증가

. 명목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2002 년 6.9 배에서 2009 년 8.9 배로 상승, 이는 금융구조의 고도화로 GDP 보다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

* 국내 '자금순환표'는 국제 표준화 차원에서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유엔 통계 위원회가 작성한 국민소득계정의 국제적 표준체계) 기준으로 자금순환통계를 개편²

< 국내 금융자산 규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 GDP.

² 과거 편제방식으로는 2005년까지 공표됨에 따라 2006년 이후의 데이터와는 연속성이 끊어지고 새 편제방식으로는 2002년부터 시작. 개인 자산측면에서 과거 데이터와 가장 큰 차이는 채권과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이 장부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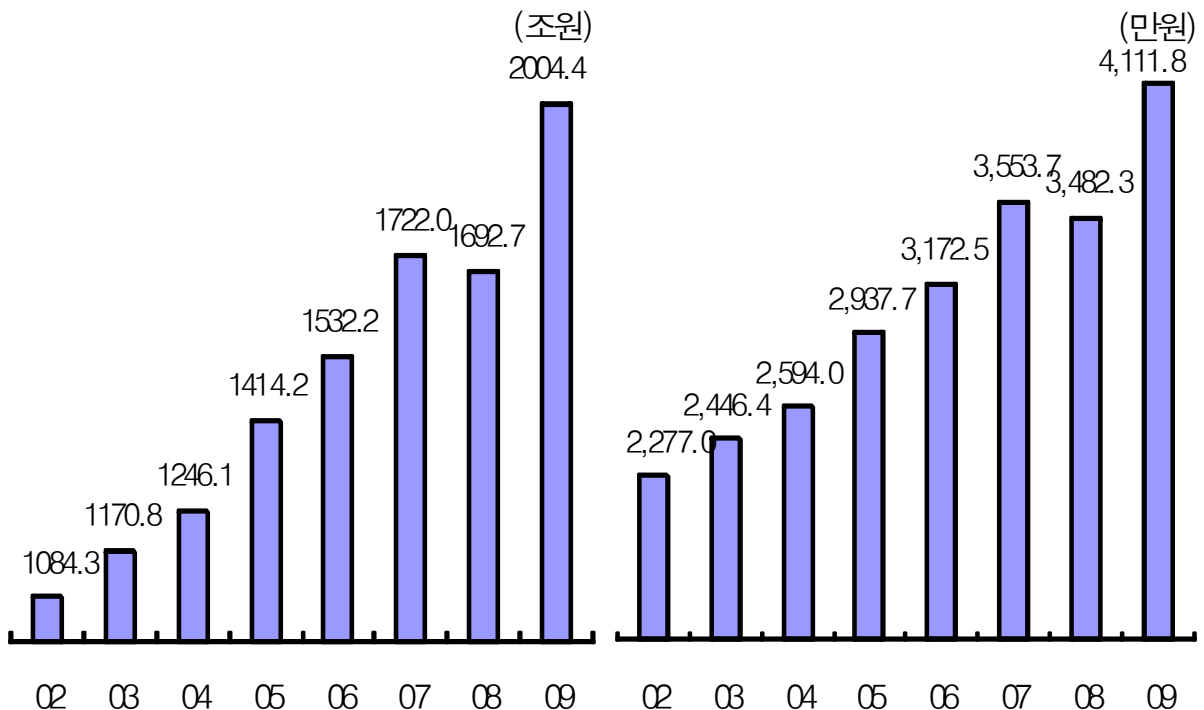
○ 한편 국내 금융자산 중 개인부분의 금융자산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9 년 2,000 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1 인당 개인금융자산도 4 천만 원을 돌파함

- 국내 개인금융자산은 2002 년 1,000 조원을 상회한 이후 7 년 만에 다시 2,000 조원을 상회
 - . 2002 년 말 현재 개인금융자산 잔액은 1,084.3 조원에서 2009 년 말 현재 2004.4 조원으로 증가
 - . 금융위기로 2008 년 29.3 조원 감소했다가 2009 년 무려 311.7 조원 급증
 - . 국내 개인금융자산 축적도(금융자산잔액/개인총처분가능소득)도 2002 년 말 현재 2.65 에서 2009 년 3.35 로 증가

- 1 인당 개인금융자산도 2002 년 2,277.0 만원에서 약 2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09 년 4,111.8 만 원을 기록
 - . 금융위기로 2008 년 71.4 만원 감소했다가 2009 년 무려 629.5 만원 급증

< 국내 개인 금융자산 추이 >

< 국내 1 인당 개인 금융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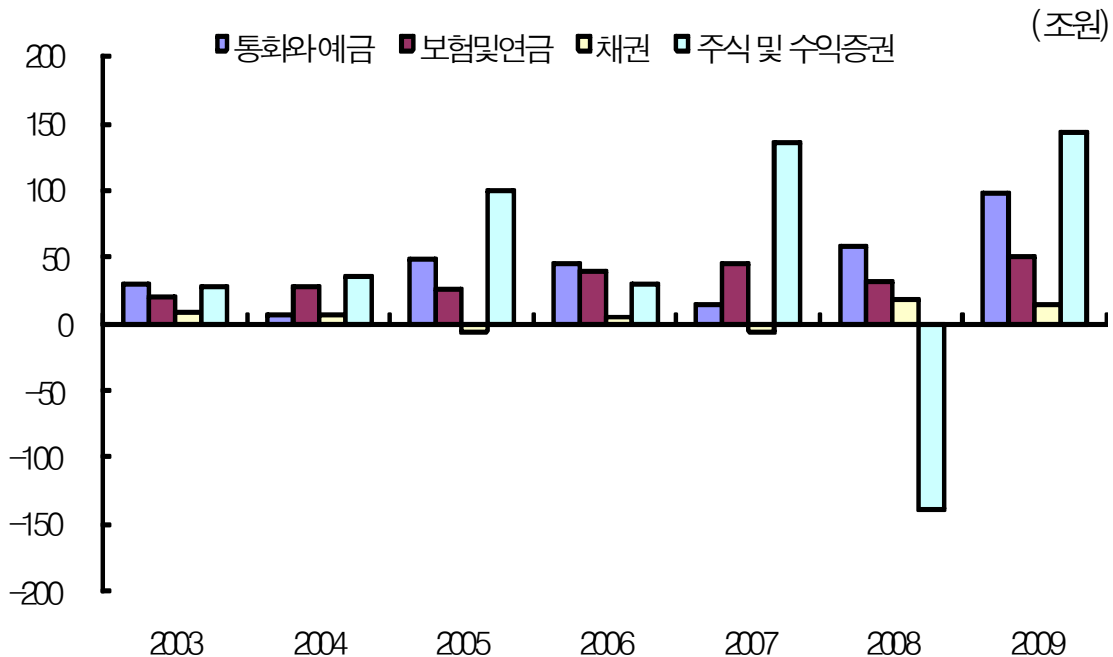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주 : 개인부분은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

○ 2009 년 개인금융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개인순금융자산도 1,000 조원을 돌파

- 무엇보다도 2008 년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하락한 시장성 금융자산('주식 및 수익증권', '채권')이 2009 년 주가 급반등과 금리 하락으로 대폭 증가
 - . 2008 년 중 '주식 및 수익증권'이 -139.2 조원 감소하였으나, 2009 년에는 144.5 조원 증가
 - . 2008 년 중 '채권'이 17.7 조원 증가한데 이어 2009 년에도 15.6 조 원 증가
-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하여 '예금'과 '보험 및 연금'도 큰 폭으로 증가
 - . '예금'과 '보험 및 연금'의 경우 2002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히 2009 년 중 '예금'이 98.8 조원, '보험 및 연금'이 50.6 조원 등 큰 폭으로 증가
- 개인부분의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1,000 조원 시대에 진입
 - . 2008 년 개인순자산이 89.2 조원 감소하였으나, 2009 년에는 259.4 조원 증가하여 2009 년 개인순금융자산은 1,140.7 조원을 기록

< 국내 개인 금융자산 증감폭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국내 개인금융자산 중 '통화와 예금' 부분은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고 '보험 및 연금' 및 '채권'과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2004년까지 50%대를 상회하던 '통화와 예금'이 2005년 이후 40%대로 진입하면서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2002년 54.3%에서 2007년 42.6%까지 급락 이후 금융위기로 2008년 상승하였다가 2009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44.4%로 다시 하락세
- '보험 및 연금'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
 - . '보험 및 연금'의 경우 2002년 21.4%에서 2009년 23.7%로 견조한 상승세
 - . '채권'의 경우 2002년의 3.5%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
- '주식 및 수익증권'의 경우 증시상황에 따라 기복이 크나 전반적으로 빠른 상승세 시현
 - . 2002년 19.2%에서 KOSPI 2,000 시기를 구가한 적립식펀드 열풍이 일어난 2007년 31.2%로 급등
 - . 2008년 금융위기로 23.5%로 급락하였다가 2009년 27.0%로 다시 반등

< 국내 개인 금융자산 구성 추이 >

(%)

	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주식 및 수익증권
2002	54.3	21.4	3.5	19.2
2003	52.8	21.6	4.1	20.2
2004	50.1	22.6	4.4	21.8
2005	47.5	21.7	3.4	26.2
2006	46.8	22.6	3.6	26.2
2007	42.6	22.8	2.8	31.2
2008	46.7	25.1	3.9	23.5
2009	44.4	23.7	4.1	27.0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2. 고령화 준비가 미흡한 국내 개인금융자산 (미·일과 비교)

○ (은퇴 후 생활에 부족한 금융자산 규모) 실물자산 보유 편중 현상 때문에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금융자산 규모 절대적으로 부족

- 국내 토지·주택 등 실물자산 선호 경향 때문에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음
 - . 2007 년 3 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가계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할 경우 76.8%가 아니라 81%로 상향
 - . 이는 미국의 33%(2007 년), 일본의 39%(2006 년)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높음

< 한·미·일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 >

	미국 (2007)	일본 (2006)	한국 (2006 기준)
실물자산	33.2%	39.0%	76.8%
금융자산	66.8%	61.0%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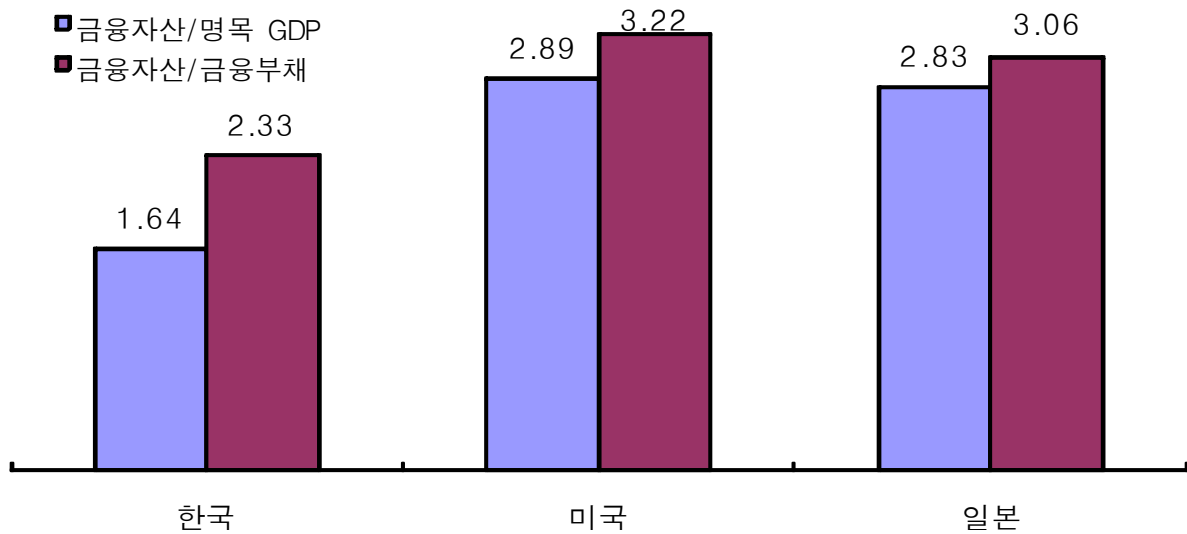
자료 : FRB, 일 내각부, 통계청, 자산운용협회 인용 참조.

- 이처럼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짐
 - .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06 년 기준 미국 33.2%, 일본 39.0% 등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76.8%임³
 - . 2008 년말 국내 명목 GDP 대비 금융자산 배율이 1.64 로서 같은 해 미국의 2.89, 일본의 2.83 등에 비해 크게 낮음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도 미국 및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음
 - . 한국의 경우 2009 년 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이 2.33 으로 미국의 3.22, 일본(2009 년 3 분기)의 3.06 에 비해 크게 낮음
 - . 이는 2000 년대 들어 실물자산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한 금융부채에 크게 의존한 결과(2004~2009 년 가계신용 증감액의 40%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

³ '국내 가계자산이 불안하다' 한국경제주평 2009. 8. 3 현대경제연구원.

< 한.미.일 상대적 금융자산 규모 비교 >

(배)



자료 : 각국 자금순환.

주 : 금융자산/명목 GDP 는 2008 년 기준, 금융자산/금융부채는 2009 년말(일본은 2009 년 3 분기) 기준.

- 가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실물자산 보유 과잉 상태에서 가계는 부동산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 위험이 크며 자칫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음
 - . 부동산가격 급락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 유동성 면에서 장기 실물자산, 단기 금융부채이라는 가계자산의 유동성 불일치(mis-match) 현상에 노출
 - . 즉,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지속될 경우 실물자산을 팔아 금융부채를 갚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실물자산 현금화가 어려움

○ (노후대비 금융자산 축적의 어려움) 국내 개인금융자산은 '통화와 예금' 위주의 일본형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 위주의 미국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창출 자산 비중이 낮음

-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은 절대적인 '통화와 예금'과 '보험 및 연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
 - . '통화와 예금'이 54.9%로서 우리나라보다 10.5%p, '보험 및 연금'의 경우 3.7%p, '채권'의 경우 2.5%p 높음
 - . 반면 '주식 및 수익증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20.1%p 크게 낮음

- 미국의 개인금융자산은 '보험 및 연금'과 '채권'과 '주식 및 수익증권'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 '통화와 예금' 부분이 14.4%로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30%p 낮음
 - . 반면 '보험 및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5.0%p, '채권'은 무려 17.9%p, '주식 및 수익증권'의 경우 4.3%p 높음

- 국내 개인금융자산은 과거 일본과 거의 유사하였지만 점차 '주식 및 수익증권' 비중이 늘어가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음
 - . 국내 개인금융자산 중에서 '통화와 예금'의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낮은 점은 미국보다 일본과 유사
 - . 반면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이 높은 점은 일본 보다 미국과 유사

< 국내 개인 금융자산 구성 추이 >

(%)

	한국	미국	일본
통화와 예금	44.4	14.4	54.9
보험 및 연금	23.7	28.7	27.4
채권	4.1	22.0	3.0
주식 및 수익증권	27.0	31.3	6.9

자료 : 각국 자금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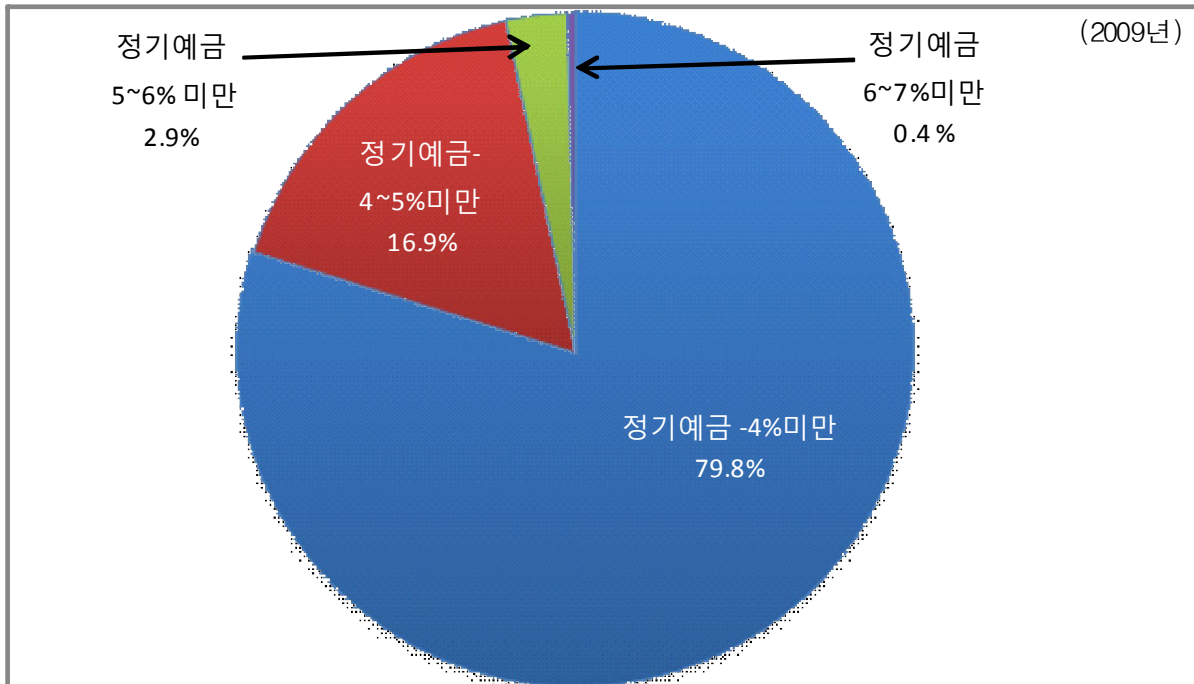
주 : 한국은 2009 년 말 기준, 미국과 일본은 BOJ 의 2009 3/4 분기 기분 발표 자료 인용.

- 최근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통화와 예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비중도 높음
 - . 2009 년 말 국내 '통화와 예금'에서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수익창출이 거의 없는 현금과 결제성단기저축의 비율은 27% 수준⁴

- 우리나라 '통화와 예금' 중에서 이자수익 창출 자산의 대표적인 정기예금도 실질적으로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제로 수익률 수준
 - . 2009 년 기준 예금은행 정기예금 중에서 연률 4%미만(실질금리 제로)의 정기예금 비중이 79.8%를 차지

⁴ '통화와 예금'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우편예금 등을 통한 장기성 예금 위주로 구성.

< 국내 예금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별 수신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 (높은 비중의 '주식 및 수익증권' 리스크) 높은 직접투자 비중으로 주식투자의 가치변동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에 부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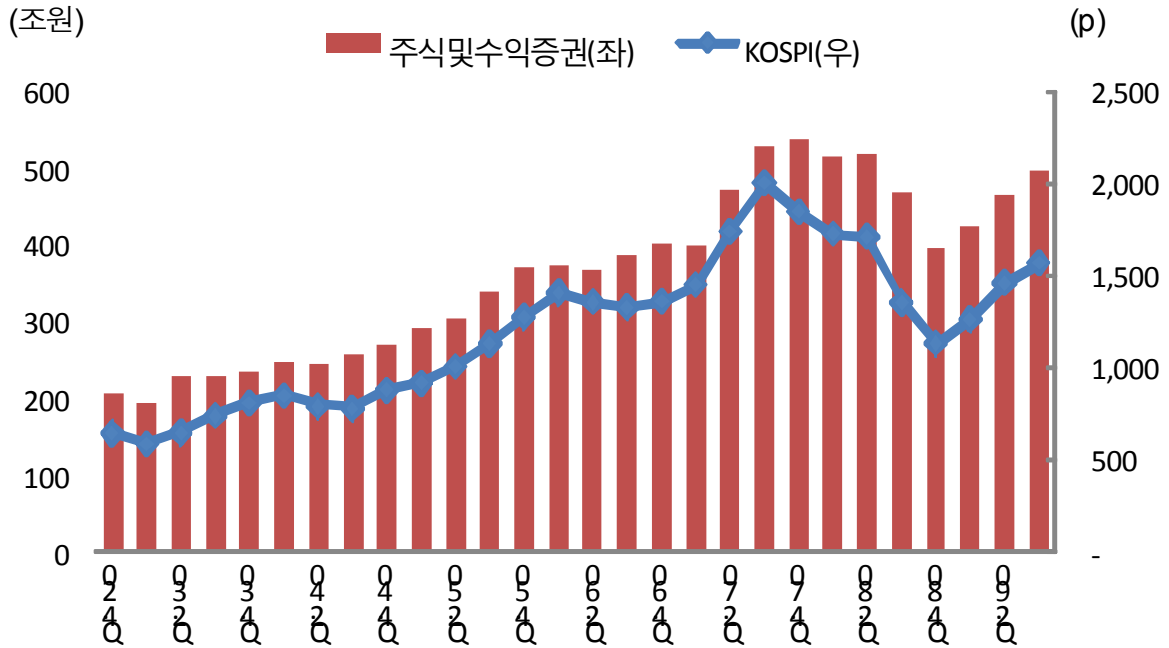
- 개인금융자산 중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수익증권'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4 페이지 참조)

- . 2006 년 일기 시작한 적립식펀드 붐이 최고점에 달한 2007 년까지 간접투자 비율이 상승
- . 그러나 우리나라 간접투자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이는 미국, 일본의 60% 이상 수준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더욱 낮음
- . 금융위기 이후 2008 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경험하면서 간접투자 비율이 낮아진 반면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

- 반면 금융위기 이후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직접투자 비중이 높음

- . 2009 년 말 현재 국내 직접투자 비중은 75.6%로서 미국의 71.5%, 일본의 65.7%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보유형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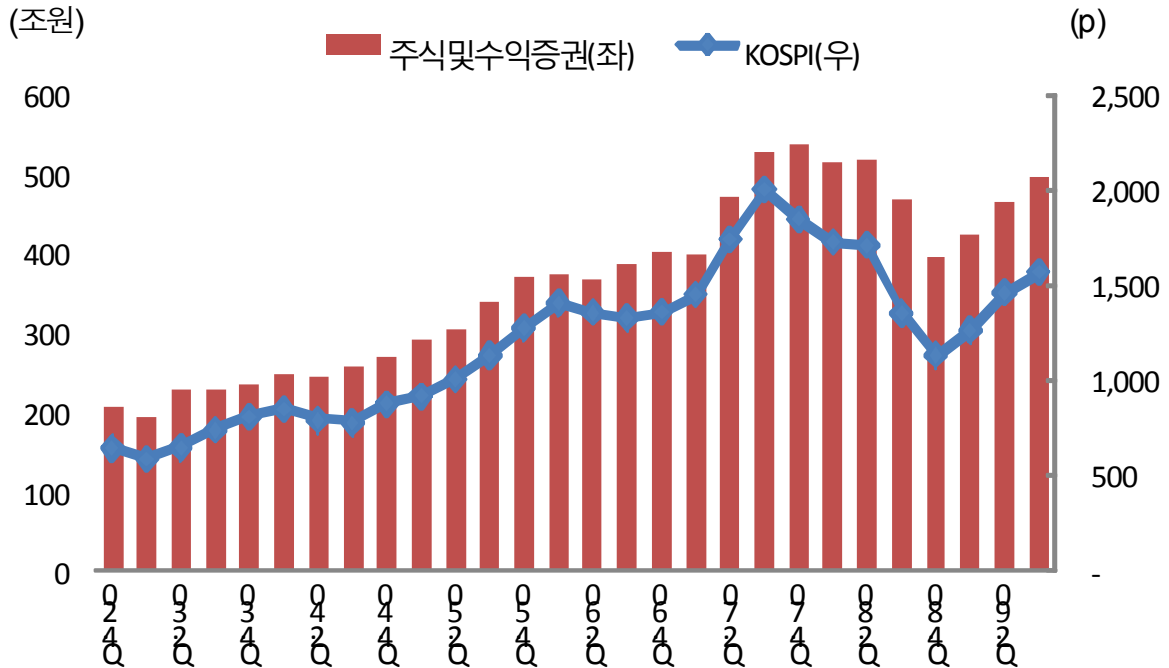


자료 : 각국 자금순환.

- 국내 개인금융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및 수익증권' 부분은 주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 KOSPI 2000 시대를 보인 2007 년 하반기 당시 개인금융자산 중 '주식 및 수익증권'이 530 조원 수준으로 급등
 - .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8 년 4 분기 당시에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 400 조원 이하로 급락

- 개인의 직간접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급등락 심화는 개인 '주식 및 수익증권' 자산의 시장리스크를 증대
 - . 개인 주식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간접투자 보다 직접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 한편 간접투자 중에서도 해외펀드 투자가 증가하면서 (2009 년 현재 해외펀드 비중이 40% 정도) 해외의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위험까지 가중

<주식 및 수익증권'잔액과 KOSP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 (노후대비 적합한 금융자산 부재) 고령생활에 필요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장기채 등 금융상품 부족하여 노후소득보장 문제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기 국채와 같은 금융상품이 발달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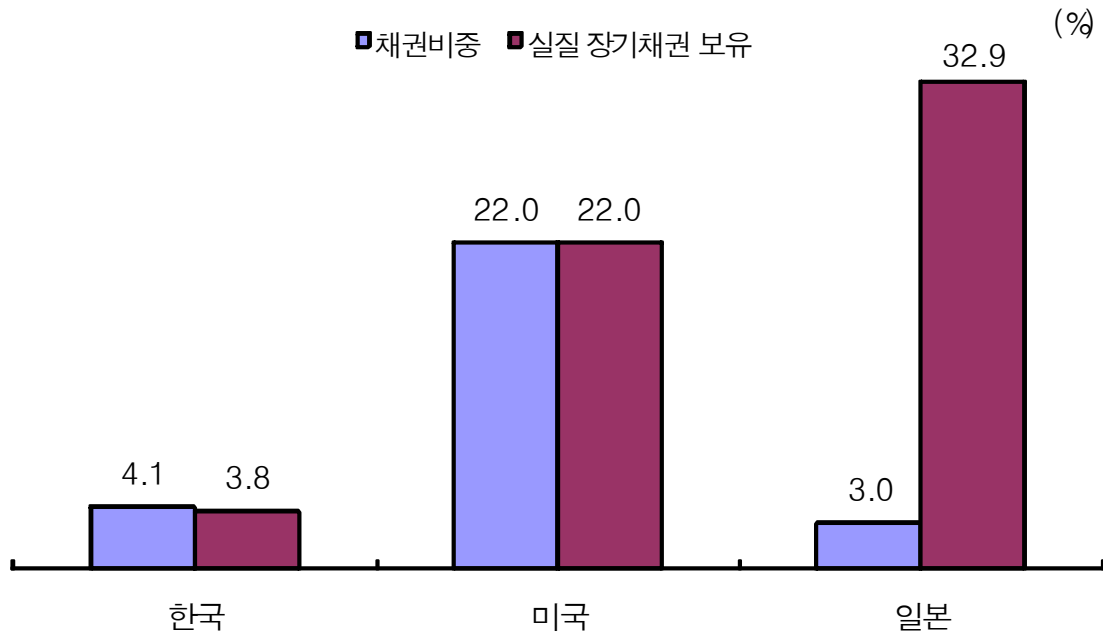
.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재의 3, 5, 10 년 만기물과 함께 15 년과 30 년 만기의 장기국채를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 부진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국내 개인금융자산 중 4.1% '채권' 비중 가운데 국채, 금융채 등 장기채 비중은 3.8%에 불과

. 미국의 경우 22%의 '채권' 비중 대부분이 국채, 모기지채권, 회사채 등 장기채로 구성

. 반면 일본의 경우 '채권' 비중이 3.0%로 낮지만 '통화와 예금'의 상당 부분이 90%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우체국 우편저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비율이 32.9% 수준임

< 한·미·일 개인금융자산 중 장기채 비중 >



자료 : 각국 자금순환.

주 : 2009 년 말 현황.

- 고령자의 특성상 은퇴 후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국채, 금융채 등 장기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음
 - . 고령자의 특성상 은퇴 후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 .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정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장기간(예 20~30 년)에 걸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기채 시장이 극도로 미흡

- 인구수명 연장, 고용구조상 정년 축소,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 국내 개인들은 대부분이 주택 등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됨
 - . 초저금리 시대에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으로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증대가 어려움

3. 대응 과제

○ (정책당국)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개인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시급함

- 무엇보다도 개인자산 중에서 가장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 가치를 안정화시켜야 할 것임
 - .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가격조정으로 해결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
 - .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그동안 저금리·과잉유동성에 의해 형성된 부동산버블이 갑작스럽게 파열하는 것에 신중히 대처
-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이 부족한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
 - .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한 표준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역모기지가 빨리 발달할 수 있는 환경
 - . 국내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고령자 및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하고,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중요
- 금융시장 개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개인의 자금이 수익성 창출 가능성이 높은 자본시장 상품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 중장기적으로 장기국채의 기준금리 기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장기국채 발행을 통한 국채시장의 육성이 요망됨
 - . 특히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의 공제 등 장기투자 상품 중심의 세제지원체계를 강화
 - . 채권시장의 하부구조를 더욱 개선 정비하고, 회사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개발

○ (민간)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심화되고, 가계의 리스크노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개인들의 적절한 대응도 중요함

- (금융기관) 고령화 대비를 위한 리스크관리가 된 수익성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개인들이 건강하게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 .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은 저금리 시대에 확정금리만으로 경쟁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 . 특히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노후대비 리스크관리에 적합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개인부문 재무관리에 필요한 금융교육 강화하고, 양질의 조언 업무를 강화
- (개인) 과다 리스크노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
-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관리 장치가 보완된 간접투자가 바람직
 - . 금융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력을 통한 금융지식 향상 필요
 - .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동성을 악성 가계부채 상황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

현대경제연구원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